

## 이문구의 『관촌수필』에 나타나 있는 로컬리티 재현 연구

우 은 진\*

### 차 례

1. 들어가며
2. 장소에서의 경험을 더듬어가는 이야기 방식
3. 초점인물들의 선택과 재현
4. 나오며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이문구의 연작소설 『관촌수필』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로컬리티 재현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관촌수필』은 구체적인 장소인 ‘관촌’ 마을이 소설 내러티브의 구심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텍스트로 읽힌다. 공통 경험과 정서적 유대를 나눌 수 있는 로컬로서의 ‘관촌’, 그러한 ‘관촌’에서 가능할 수 있는 장소적 경험에 대한 기억에 뿌리를 두고 사유되는 로컬리티,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인간 존재의 정체성과 인식기반은 곧 『관촌수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모으고 있는 동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이때 ‘관촌’에서 경험한 인간의 삶과 상호작용에 대한 사유는 서술주체에 의해 로컬리티에 대한 재현으로 텍스트 공간 내에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관촌수필』이 그러한 로컬리티 재현을 소설 텍스트 내에서 해내고 있는 방식을 이야기 구성과 인물 선택·재현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업이다. 즉 장소의 의미를 환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소설 텍스트의 내적 응집체로서 각각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로컬리티와 그 재현의 의의를 중심으로 『관촌수필』의 서술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 논문이다.

주제어 : 이문구, 관촌수필, 로컬리티, 로컬, 장소, 재현

## 1. 들어가며

로컬(local)은 어원적으로 “어떤 장소와 관계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sup>1)</sup>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로컬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삶의 다양한 경험과 기억이 쌓이는 장소라는 뜻으로 이해된다.<sup>2)</sup> 다시 말해 로컬이란 어떠한 장소, 특정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자기 삶의 터전으로 인식할 때 사용 가능한 개념이다. 즉 로컬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으로써, 현재적으로 형성해가고 있는 다층적 장소성의 복합·교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기에 로컬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특정한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호 관계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때 그와 같은 로컬에서 발현되는 장소적 속성 또는 가치를 로컬리티(locality)

1) 류지석, 『로컬리티를 위한 시론』,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혜안, 2009, 22쪽.

2) 류지석, 『사회적 공간과 로컬리티』, 류지석 편,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소명출판, 2013, 157쪽.

라고 한다. 따라서 로컬리티의 의미에는 어떠한 장소에 복합적·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있다고 인식되는 장소성,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람들의 관계 양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3)</sup>

그러한 로컬리티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장소 안에서 사람들의 삶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특성으로 지닌다. 또한 그와 동시에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욕망에 따라 재인식, 형상화 등의 방식으로 재생산되거나 재현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로컬리티란 인간이 특정 장소에 부여하는 의미들에 의해 형성·인식·인정되는 장소성을<sup>4)</sup> 바탕으로 하여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이문구의 『관촌수필』은 특정 장소에 부여되는 의미들에 의해 겹겹이 형성된 장소성들이 시간과 관계성의 영향 속에서 복합·교차됨으로써 생성되는 그 로컬리티의 재현을 보여주는 소설로 읽힌다.

『관촌수필』<sup>5)</sup>은 1970년대에 발표된 연작소설<sup>6)</sup>이다. 1972년부터 1977

3) 조명기, 『로컬리티의 인식 층위와 주체-타자의 변주』, 문재원 외, 『로컬리티 담론과 인문학』, 소명출판, 2017, 98쪽; 차윤정, 『로컬리티의 개념적 이해와 언어표상』, 문재원 외, 『로컬리티 담론과 인문학』, 소명출판, 2017, 117쪽.

4) 전종한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8, 295쪽.

5) 본 연구에서는 <이문구, 『관촌수필』, 문학과지성사, 2001>을 중심 텍스트로 삼는다. 『관촌수필』은 1977년에 단행본 초판을 발행한 이후 내용의 개작 없이 계속 발간되어 왔기에 2001년 출간된 재판 12쇄 본을 텍스트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더불어 이 논문에서는 중심텍스트를 본문에 인용할 경우, 각주 처리 없이 각 단편의 제목과 인용 쪽수만을 괄호 안에 표기할 것임을 미리 밝혀두도록 한다.

6) 이문구는 집필 당시 무명작가였던 까닭에 장편소설을 쓸 지면을 제공받기 어려워서 여기저기 띄엄띄엄 발표해야 하다 보니, 그 하나하나가 독립된 단편이면서도 이어놓으면 장편으로 읽힐 수 있게끔 소설을 쓰게 되었다는 말로써 『관촌수필』을 연작소설로 창작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에 앞서 “농사를 지을 때 해마다 같은 땅에 똑같은 종자를 심는 걸 연작(連作)”이라 하여, 연작의 기본의미부터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내적 연관 요소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발언으로 읽힌다. 이때 ‘같은 땅’은 우선 서술공간인 텍스트로도, 또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장소인 동시에 이야기되고 있는 장소인 ‘관촌’의 의미로도 이

년까지 5년이라는 시간적 거리를 두고, 『일락서산』에서 『월곡후야』까지 총 8편의 텍스트가 순차적으로 발표된 이후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sup>7)</sup> 그렇게 『관촌수필』을 구성하고 있는 단편소설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소는 장소인 ‘관촌’과 동일한 서술주체로 파악되는 ‘나’이다. 이들은 이문구의 『관촌수필』이 연작소설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대표적인 내적 연관 요소이다. 다시 말하자면 『관촌수필』의 이야기들은 그 두 요소를 매개로 하여 커다란 한 덩어리의 텍스트로 꿰어집으로써 연작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관촌수필』은 경험주체이자 서술주체인 ‘나’의 경험과 가치관, 정체성 등이 ‘관촌’이라는 장소 안에서 형성되는 모습/그러한 장소의 정체성이 과거와 현재의 ‘관촌’에 대한 ‘나’의 선택적 기억과 서술을 통해 소설 텍스트 공간 위에 재현되는 모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장소에 의한/대한 정체성 형성의 상호연관성을 바탕으로 하여, ‘관촌’이라는 장소는 공간적 배경을 넘어서서 소설의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또 연결하는 요소로서 존재하고 있다.

『관촌수필』에서 ‘관촌’은 표면적으로도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향해 열려 있는 체험공간(erlebter Raum)으로서 형상화되고 있다. 서술주체인 ‘나’가 친밀한 경험의 기억을 서술해가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그 경험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장소로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공간이란 ‘나’가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또 해석하는 데에 따라 다른 색채를 입으며

---

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똑같은 종자를 심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발화 행위 주체인 작가, 또는 발화주체인 서술자 ‘나’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이 연구에서는 각각 후자 쪽에 보다 더 주목하여 『관촌수필』을 고찰하고 있다. 이문구, 『『관촌수필』과 나의 문학 역정』, 박경리 외 16인, 『나의 문학 이야기』, 문학동네, 2001, 149-150쪽.

7) 각각 다른 지면에 발표되고 있던 당시부터 『관촌수필』이라는 큰 제목과 각각의 작품 제목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형태로 연계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작가 이문구가 그 집필 과정에서부터 이미 연작의 형태를 의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장소화될 수 있는 곳이다.<sup>8)</sup>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인간이 친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한 장소는 그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기억과 서술에 의해 재현되고 있는 특정 장소의 속성과 가치, 즉 로컬리티를 분석해보는 일은 그 장소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파악해낼 수 있는 작업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삶에 대한 미학적 형상화인 문학은 곧 장소에 대한 형상화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장소는 기본적으로 인간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인 동시에, 장소와 그것의 정체성은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형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문학에서 장소는 이야기의 출발선이자 그 이야기가 도달해야 할 당위의 공간이라는 말로도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작가가 장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장소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sup>9)</sup>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관촌수필』은 ‘관촌’이라는 장소의 로컬리티를 재현함으로써, 장소 재현의 욕망과 방식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소설로 파악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촌수필』의 장소에 주목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작가-주체가 토포필리아 또는 노스텔지어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근대사회의 장소 상실에 따른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과거-고향을 특권화 또는 재구축하는 서술행위를 하고 있다는 견해를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이 포착된다.<sup>10)</sup> 이는 장소 기억의 욕망에 주목하고 있

8)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17-18쪽.

9) 문재원, 『문화전력으로서 장소와 장소성-요산 문학에 나타난 장소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혜안, 2010, 24-25쪽.

10) 김정아, 『이문구 소설의 토포필리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9; 신재은, 『이문구 소설에 나타난 토포필리아의 수사학—심리적 신허의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9; 용석원, 『이문구 『관촌수필』에 나타난 고향의 양상과 의미』, 『겨레어문학』 제58집, 겨레어문학회, 2017. 6; 이평전, 『이문구 소설에 나

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는 분석들이다.

그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로컬리티 재현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관촌수필』을 분석하고자 한다. 『관촌수필』은 장소 안에서 쌓은 경험과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만들어온<sup>11)</sup> 인물을 서술주체로 내세우고 있는 소설이다. 장소 안에서의 인문적 관계가 그 인물의 세계관을 형성했다는 사실은 소설 텍스트 속 과거 회상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한편 그런 동시에 『관촌수필』은 그렇게 형성된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물과 이야기들을 선택적으로 기억, 해석, 서술하고 있는 서술주체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관촌’이라는 장소의 로컬리티로 형성된/인식되고 있는 것을 텍스트 공간 속 ‘관촌’이라는 형태로 형상화하는 서술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관촌수필』은 로컬리티 재현이라는 의미에서 장소를 형상화하고 있는 텍스트인 것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장소 경험과 장소성 형성의 인간 사유를 텍스트 내 로컬리티 재현의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관촌수필』의 서사를 소설의 이야기 구성과 인물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 2. 장소에서의 경험을 더듬어가는 이야기 방식

『관촌수필』은 소설 텍스트 공간의 서술주체인 ‘나’가 현재의 고향을 찾으면서 그 장소에서 쌓은/그 장소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서술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사건의 전후순서나 인과관계에 따라 서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삽화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sup>12)</sup>

타난 기억 공간과 주체 재현 양상 연구, 『배달말』 제51집, 배달말학회, 2012

11) 이푸 투안, 이옥진 역, 『토폴로피아』, 에코리브르, 2011, 21쪽.

12) 이문구가 『관촌수필』에서 선택하고 있는 ‘병렬적 방식’이란 내적 연관보다는 독자적 분절성에 치중하는 구성 방식이다. 분절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나열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게 된다. 반면 ‘직렬적 방식’은 독자적 분절성보다는

형태로 이야기되고 있다. 연작을 구성하고 있는 8편 단편소설의 이야기들이 소설 전체의 삽화들처럼 펼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각 단편들의 내부도 몇 개의 삽화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 삽화들은 필연성을 가진 이야기로 묶이지 않기에, 그것들을 조합해 보아도 서술주체의 연대기적인 이야기를 파악해내기는 어렵다. 시간적·인과적 구성에 따른 사건의 전개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 구성 측면에서 내적 결함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도 준다.

그러나 『관촌수필』의 삽화식 배열은 그저 비체계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장소와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선택한 이야기 구성 방식으로 보인다. 월터 J. 옹에 따르면, 연대기적이거나 인과적인 구조를 부여하기 어려운 이야기의 경우, 삽화식 배열을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sup>13)</sup> 이때 『관촌수필』은 시간 질서를 중심으로 한 연대기적 또는 인과적 이야기보다는, 특정한 장소 안에서 중층적으로 존재하며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던 사람들의 삶을 단편과 단편으로 경험한 서술주체의 기억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삽화식 배열을 선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락서산』에서 성묘를 하기 위해 고향인 관촌을 찾은 ‘나’는 마을의 칠성바위 근처에서 조부의 환영을 보고, 조부에 대한 일화들을 떠올린다. “당신의 헛묘[假墳墓]를 굽어보고 서 있”(16쪽)은 조부의 환영을 본 서술주체의 머릿속에 조부가 자신의 무덤자리를 돌보며 삶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던 그 말년의 일화들이 몇 가지 끌려오듯 재현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때 그 삽화들의 틈 속에 조부의 무덤자리 언저리에

---

내적 연관을 더욱 중시하는 경우이다. 이는 연작의 내적 연관 및 논리적 구조를 통해 문제의식을 하나로 모으며 총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구자황, 『이문구 소설 연구-구술적 서사전통과 변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20쪽.

13) 한편 삽화식 구조는 구술문화에서 긴 내러티브를 상상하고 만드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도 인식되기도 했었다. 월터 J. 옹, 임명진·이기우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한국학술정보, 2003, 217쪽.

서 나물을 뜯던 응점이 이야기, 조부를 지극히 모시면서도 그와 대별되는 성격을 가졌던 아버지 이야기가 불쑥불쑥,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섞여들기도 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소설적으로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일상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일상의 경험과 기억의 연상을 재현하고 있는 서술이기 때문이다.

이어 『공산토월』도 필연성 없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술주체는 먼저 영화 <대부>의 상영을 찬성하는 글을 써달라는 기자의 청탁을 받고 글을 쓰게 된 이야기로 서술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이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오해를 받자, 그렇지 않다는 말들을 서술하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성격의 사람들 이야기를 삽화처럼 펼쳐놓기에 이른다. 동료 작가 박용래, 임강빈, 박재삼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서울에서 외톨이로 살다 지쳐서 시골로 가기로 결심하고는 그 전에 먹고 싶었던 쌀밥과 포도와 콜라를 사 먹어보기 위해 택시 기사를 살해한 소년의 사건을 신문 기사로 접하고, 자신의 원고료를 소년에게 차입해 주려다 포기하게 되는 이야기도 함께 한다. 이때 소년에게 동정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는 6·25가 일어나던 해 약 석달 가량 어느 집에서 피난살이를 하면서 굶주림과 소외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꺼내고 있으며, 그럼에도 원고료 차입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로는 작가 한남철과 대화를 나누었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서술주체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은 끝에서야 인간의 본성 문제를 거론하며 “하나의 구원한 인간상”(192쪽)으로서 『공산토월』의 초점인물인 석공 신현석을 소개한다. 석공은 과거 관촌에서 ‘나’의 가족과 가까웠던 이웃이다. 서술주체는 이 인물의 삶을 부분, 부분 재현해 내는 것으로 좋아하는 성격 유형과 동정심이 자기 내부에 형성된 근원에 관한 설명을 대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술주체는 기억들을 이리저리 더듬어가는 방식으로 자기 가치관, 정체성 형성의 근원을 찾아서 이

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원에 대한 설명은 관촌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다정한 이웃과의 교류, 즉 장소적 경험을 재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관산추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건적으로는 크게 연관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열되고 있다. 전반부에 나오는 복산이 아버지 유천만의 일화들과 후반부의 복산이 이야기는 도깨비불이라는 소재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과거의 개펄과 현재의 우수지를 비교하는 시선에 의해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이어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서술주체는 그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어린 ‘나’의 학질을 떼어주기 위해 웅점, 그리고 대복이와 그의 어머니가 작은 소동을 일으키는 이야기, 복산 어머니 목집의 신세와 부지런한 성품을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 등을 또 삽화처럼 끼워 넣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서술주체의 유년시절은 가까이에서 교류하며 함께 살아간 이웃들의 복합적인 삶과 관계 속에 연결되거나 포함되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소설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며, 이야기를 전개해가려는 과정까지도 모두 텍스트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로서 서술하는 서술주체이다. ‘나’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 현재의 일상을 서술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이야기 과정을 밟기도 하는데, 이때 현재 일상의 사건과 과거 ‘관촌’에서의 경험은 인과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묶여서 이야기되고 있는 ‘관촌’에서의 경험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야기들은 모두 서술주체가 느끼는 정서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하여 한자리에 묶여 이야기되고 있다. 달리 말해 서술주체는 이야기의 순서와 전체적 집합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 정체성의 근원적 경험들을 가능하게 한 이웃들, 그들의 삶과 그들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했던 친밀한 장소로서 ‘관촌’의 면면을 이야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열차가 한내읍 머리말이기도 한 갈머리(冠村部落) 모퉁이를 돌아설 즈음엔 차창에 빗방울까지 그어지고 있었다. (『일락서산』, 10쪽)

윤영감네 일가가 관촌부락에 떠들어온 것도, 그렇게 죽지 못해 삼동을 물리고 해가 원수같이 길어지기 시작한 어름이었다. (『화무십일』, 63쪽)

그 무렵 관촌부락으로 이들이 멀게 하루걸이로 가위 소리는 내며 다닌 옛장수 한 사람이 있었다. (『행운유수』, 96쪽)

그렇게 다들 산지사방으로 제 갈 길을 더듬어 갈 때, 대복이 아버지 조중찌(趙中之) 혼자만이 행랑채를 얻어 관촌부락에 남게 된 것은, (『녹수청산』, 124쪽)

관촌에서 노박이로 살고 있는 한은 내가 되려 폐를 끼치며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았고, 실지 그리 됐음이 사실이던 것이다. (『공산토월』, 234쪽)

무엇이 왜 안 변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관촌부락을 방문할 때마다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다. (『관산추정』, 295쪽)

그러나 그것들이 관촌부락 앞에서 모습을 감춘 지도 어언간에 반 세대가 지난 것 같다. (『여요주서』, 316쪽)

그는 내려가고 얼마 안 있어 관촌부락도 배추밭 도리듯 하고 뚝는데, 그가 옮겨가 따리를 들고 놀러왔던 곳은 (『월곡후야』, 353쪽)

위의 인용에서도 단면적으로 볼 수 있듯이, 『관촌수필』에서 각 단편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관촌’이라는 장소에서의 경험, 그 장소에 대한 생각이다. 그렇기에 장소 경험과 장소성이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8편의 단편들도 주제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곧 ‘관촌’이라는 장소를 재현하고 의미화하고자 하는 서술주체의 욕망은 『관촌수필』이라는 전체 연작소설을 묶어주는 유일한 구심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른 인물의 일화가 끼어들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등 긴밀한 연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이야기들은 ‘관촌’이라는 장소와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서술주체의 욕망에 의해 선택된 경험들로서 나란히 배열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경험 서술의 선택과 배열에서 잣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서술주체의 욕망은 ‘관촌’이라는 장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정서, 그 정서를 바탕으로 생성된 장소의 의미화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에 서술주체 ‘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은 곧 ‘관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내적 공간으로서의 기억을 겹겹이 더듬어가는 길을 만드는 일, 그 기억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관촌’에서의 경험들을 선택적으로 더듬는 일이 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기억으로 저장된 장소 경험에 대한 해석, 의미화를 실천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실천을 통해 텍스트 공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관촌’의 로컬리티 재현이다.

인간은 어떠한 특정한 공간 위에서 일정 이상 살아가게 되면 그곳을 자기 삶의 터전으로 여기게 된다. 그 공간을 자신의 장소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장소와 관련된 친밀한 경험들은 내적 공간인 기억의 겹겹 속에, 곧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를 잡는다. 이때 그러한 경험은 대개 그 장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이들과 교류하며 쌓아낸 ‘공통 경험’이다.<sup>14)</sup>

인간은 모두 공간의 구체적 자리에 위치하여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러한 장소에 대한 친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와 함께 공간을 내면화하는 능력과 습관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을 외적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추상화로 만들어지는

14)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13-15쪽, 220쪽.

기억은 내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대개 외적 공간은 인간 삶의 조건을 규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고, 내적 공간은 인간 삶의 의미를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그 외적 공간과 내적 공간이 인간 삶에서 어우러짐으로써, 특정한 공간은 우리 삶의 장소가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장소를 감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과 심리의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공간은 인간이 ‘공통 경험’을 층층이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주므로, 그곳에서는 ‘나’ 개인의 기억들이 교차되는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들의 기억들도 교차될 수 있다. 그 기억에 대한 우리의 해석 행위를 바탕으로 공간과 기억은 끊임없이 생산/재생산되는데, 그렇게 외적 공간과 내적 공간이 어우러진 결과로 장소와 그 의미는 형성되는 것이다.<sup>15)</sup> 즉 인간은 장소를 만드는 동시에 장소의 정체성, 장소를 둘러싼 정체성을 만드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장소와 그 장소에 대한 정체성을 만드는 일은 특정 공간을 공유한 이들의 ‘공통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경험과 기억을 근원으로 하여 형성되는 인간 개인의 정체성도 그 ‘공통 경험’과 ‘장소에 대한 정체성’ 속에 포함되거나, 또는 그것들의 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관촌수필』은 그러한 인간과 장소의 관계를 잘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러한 특징은 서술주체인 ‘나’가 등장인물들의 위에서 권위적 시선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가족이자 이웃으로서 옆 또는 사이에 위치하여 그들과 자신의 ‘공통 경험’의 겹겹 중 일부를 풀어내고 있는 서술 태도와 방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 이문구의 소설은 ‘보여주기(묘사)’보다는 ‘말하기(서술)’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평가를 받곤 한다. 『관촌수필』의 서술자 역시 텍스트에 재현된 허구적 세계가 바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적 세

15) 박상진, 『공간의 기억』, 철학아카데미, 『공간과 도시의 의미들』, 소명출판, 2004, 13-15쪽.

계의 재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귀와 몸’으로 들은 것을 이야기로 전해주는 태도, 즉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sup>16)</sup>

그런데 이때 『관촌수필』의 현실 재현은 장소를 중심으로 한 ‘공통 경험’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중심이 되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살아가며 영향관계를 주고받았던 로컬의 경험, 그것을 바탕으로 인식하고 있는 로컬에 대한 정체성, 즉 로컬리티이다.

한편 『관촌수필』의 ‘관촌’은 특히 기층적 로컬리티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장소로 파악된다. 기층적 로컬리티란 로컬이 가지는 자연적·물리적 측면, 즉 로컬리티가 가지는 기본적 구성요소인 장소성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로컬은 우리에게 우선 장소로 다가오게 되며, 우리가 경험하는 구체적 공간인 장소는 로컬의 기초적 표상이 되기 때문이다.<sup>17)</sup> 『관촌수필』에서 ‘관촌’은 우선 ‘나’가 장소,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장소와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체험공간으로서 나타나고 있기에, 그러한 기층적 로컬리티를 강하게 보여주는 장소로 느껴진다. 따라서 『관촌수필』에서 ‘관촌’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곧 기층적 로컬리티를 의미화하며 재현하고 있는 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촌수필』은 그러한 기층적 로컬리티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장소에서의 친밀한 경험에 대해 기억을 더듬는 방식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태도의 서술자를 만들어내어 세우고 있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16) 구자황, 앞의 논문, 1쪽, 44쪽.

17) 로컬리티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다. 류지석은 그러한 로컬리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기층적 로컬리티/ 위계적 로컬리티/ 인식(가치)의 로컬리티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을 참고하며, 『관촌수필』의 장소를 고찰하기 위한 개념으로 기층적 로컬리티를 선택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성을 발현시키는 진행의 공간으로서 로컬을 규정하고 있는 이 개념은 『관촌수필』이 보여주고 있는 장소성을 중심으로 한 인간 존재론적 차원과 근대성 비판 차원의 사유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류지석(2009) 앞의 글, 26-28쪽.

### 3. 초점인물들의 선택과 재현

『관촌수필』은 서술주체가 기억과 경험을 더듬는 과정 자체가 상세히 진술되고 있는, 매우 느슨한 서사구조<sup>18)</sup>를 가지고 있는 소설 텍스트이다. 이야기는 ‘나’가 자기 생각의 흐름에 따라 하나하나 떠올리는 인물의 일화를 나열하고 있는 듯한 형태로 서술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느슨한 구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초점인물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을 바라볼 수 있다.<sup>19)</sup> 그리고 이는 장소에 대한 이해, 의미화와 맞닿아 있다. 『관촌수필』의 ‘관촌’은 서술주체에 의해 구체적인 삶의 장소로서 기억되고 있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살아감으로써 친밀한 장소로 형성된 곳으로서 텍스트 공간 속에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떠한 공간에 다른 사람들과 안정적으로 머무르는 가운데 친밀한 경험들을 하고 나눔으로써, 그 공간과 관련된 기억과 감정, 나아가 문화를 쌓아간다. 그렇게 하여 장소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장소 안에서, 장소와 자기 존재의 연결 혹은 유대 속에서 자기정체성을 확립해가며 삶을 구성해가기도 한다.<sup>20)</sup> 이때 장소에 대한 애착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맺는 상호작용과 큰 연관을 가진다.<sup>21)</sup>

『관촌수필』 연작은 ‘관촌’이라는 장소 안에서 함께 살았던/현재도 살

18) 플롯의 유형은 크게 ‘느슨한 플롯’(loose plot)과 ‘팽팽한 플롯’(tight plot)으로 구분될 수 있다. ‘느슨한 플롯’은 대개 클라이맥스를 가지지 않는 반면, ‘팽팽한 플롯’은 대체로 체계적 단계들과 함께 일정한 클라이맥스를 갖추고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소설은 이 ‘팽팽한 플롯’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김정자, 『소설의 구조』, 현대소설연구회 저, 『현대소설론』, 평민사, 76-77쪽.

19) 『관촌수필』은 이러한 측면에서 진실한 삶의 구체성이 배어 있는 텍스트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인환, 『이문구 소설에 나타난 근대성과 탈식민성 연구』, 청동거울, 2003, 122쪽.

20) 박상진, 앞의 글, 13-15쪽.

21)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85쪽.

아가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서술주체는 8개 단편들을 통해 각각 다른 초점인물과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있다. 이때 각 단편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들은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인물을 둘러싼 이야기들 역시 긴밀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일정한 플롯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일관되거나 연관성 있는 사건의 전개를 드러내기보다는, ‘관촌’이라는 장소에서 ‘나’와 교류했던 인물들의 여러 이야기를 이리저리 넓게 펼쳐놓는 방식으로 『관촌수필』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관촌’의 이야기는 시간상으로 보면 크게 서술주체가 관촌에 머물러 살던 과거와 관촌을 떠나 살고 있는 현재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편 『일락서산』부터 5편 『공산토월』까지는 과거의 인물과 경험에 대한 기억을 더듬는 이야기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면, 6편 『관산추정』부터는 현재 관촌에 살고 있는 인물의 이야기도 시대적 변화와 함께 서술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관촌수필』은 서술주체 ‘나’의 정체성이 ‘관촌’이라는 장소 안에서 형성되는 모습들부터 보여준 뒤,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관계적·시간적으로 이야기를 점점 넓혀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연작의 첫 작품인 『일락서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의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서술주체인 ‘나’가 13년 만에 다시 찾은 고향 ‘관촌’에서 할아버지의 기억부터 떠올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장소에 대한 경험과 기억 이야기의 시작점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조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더듬어 볼 수 있는 ‘나’의 가족의 경험을 곧 교차되어 섞여들 장소 안 ‘공통 경험’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먼저 과거 ‘관촌’에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일락서산』의 초점인물인 조부라고 이야기된다. 조부는 과거 ‘관촌’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던 인물이기도 하다. ‘나’는 성묘를 하기 위해 고향을

찾으면서 그러한 조부의 말씀과 모습부터 떠올려내고 있다.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가문을 지킨 모든 선인 조상들의 심상은 오로지 단 한 분, 할아버지 그분의 인상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내가 그리워해 온 선대인은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동기간들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색창연한 이조인(李朝人)이었던 할아버지,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진실로 육친이요 조상의 얼이란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는 거였고, 또 앞으로도 길래 그럴 것같이 여겨진다는 것이다. …(중략)… 당신 생전에 받은 가르침이야말로 진실로 받들고 싶도록 값지게 여겨지는 터임에, 거듭 할아버지의 존재와 추억의 조각들을 모은 것의 으뜸으로 믿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일락서산』, 9-10쪽)

서술주체인 현재의 ‘나’에게 할아버지는 진실한 “육친”이자 “조상의 얼”로 이미지화되어 기억되고 있는 인물이다. 달리 말해 할아버지는 ‘나’의 존재 근원이자 인격 형성의 근본으로 인식되고 있는 존재이다. 그런 할아버지는 과거 ‘관촌’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전체에게 어른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모습으로 경험주체인 어린 ‘나’의 기억에 강하게 남겨졌다. 그리고 서술주체인 현재의 ‘나’는 그 기억을 선택하여 이야기 기함으로써,<sup>22)</sup> 자신의 인식 속에 형성되어 있는 과거 ‘관촌’의 로컬리티를 재현해내기 시작하고 있다.

잔칫집에서는 오래 큰상을 차려오게 마련이었다. 마을의 어른에 대한 인사치레로서 그네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음식상은 물론 맨 먼저 사랑마루에 놓여졌다.(『일락서산』,

22) 어떤 인물의 관점으로 보는가와 누구의 목소리로 서술하는가는 초점화와 서술의 문제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관촌수필』의 과거 관촌 재현 부분에서는 경험주체인 어린 ‘나’의 관점과 서술주체인 현재의 ‘나’의 관점이 혼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최종적인 목소리는 후자의 것이다. 제라르 즈넛프,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174-177쪽.

53쪽)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으레” 상을 차려 할아버지께 올렸었다. 마을 전체가 그러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할아버지를 마을 전체의 어른으로 모시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친밀한 유대관계를 드러낸다.

할아버지 또한 “고색창연한 이조인”으로서 유교적 신분질서를 따지기는 하나, 한 마을의 어른으로서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살피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나’에게 기억되고 있다. 할아버지는 ‘나’의 유년 시절, 어머니의 교전비 보충역으로 ‘나’의 집에 들어와 “부업데기”로 살았던 웅점이와 그 동생 복점이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는가 하면, ‘나’와 동네 아이들 진현, 준배를 앉혀 두고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기도 했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마을의 어른으로서 자리하고 있었으며, 마을은 할아버지를 주축으로 하여 공동체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는 ‘관촌’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이때 이야기 속에서는 경험주체인 어린 ‘나’가 할아버지의 수발을 드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던 모습이 서술되기도 한다. 그와 함께 서술주체인 현재의 ‘나’는 할아버지가 유교적 질서 중에서도 상부상조와 같은 공동체적 성격의 질서를 실행하는 장면에서 그 인물과 질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게 ‘나’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정신과 정서를 할아버지와 마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키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과거 한 마을에서 삶을 함께 했던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부분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녀는 나보다도 10년이 위였지만, 노상 동갑내기처럼 구순하게 놀아주었으며, 내가 아망을 떨거나 핀잔 듣고 토라져 우울해 하며 자기 신세

를 북을 적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감싸주었고, 즐거움과 스산함을 함께 나눠 갖는 든든한 보호자 역할도 겸하고 있었다.

어디가 선창거나 무슨 일로 부르터서 밥 먹기를 거부하면 덩달아 숟가락을 들지 않았고, 얇아 누워 약 먹기 싫다고 몸부림치며 울어대면 약 종발을 든 채 그 큰 눈이 눈물에 젖으며 함께 아파하기를 마지않던 그녀였다.(『행운유수』, 80-81쪽)

『행운유수』의 초점인물인 웅점이는 ‘나’의 집에서 “부엌데기”로 일하는 신분이었지만, 어린 시절 친구이자 “보호자”로서 ‘나’에게 큰 애정을 베풀어주었던 사람으로 이야기된다. ‘나’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나’의 “즐거움과 스산함을 함께 나눠”가졌던 웅점이는 공동체의 기본 정신인 동고동락의 경험을 ‘나’가 빈번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준 인물이라 볼 수 있다. 이때 웅점이의 공동체적 성향은 할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소 안 전체에 발휘된다. 이는 “동냥을 주면 종구라기가 넘치고”, “남의 억울한 일에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뒹들어 싸워주며”(92쪽), 전제민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동정하며 그들의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팔아주고 싶어 하는 등 그녀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지금 생각에도 그 집 외아들 대복이는 여간 좋은 친구가 아니었다. 나한테 대복이만큼 듄직하고 아쉬웠던 친구가 그 후론 다시없는 것 같을 정도로-...(중략)... 그런데도 나는 이런 난리 저런 난리 다 겪어 어지간히 철이 들 무렵까지는 노상 그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고, 대복이 또한 허물 앓고 내게 베풀어주기 즐긴 것으로 안다.

내가 멜빵 달린 반바지에 단추 붙어 있을 새 없던 생모시 반소매를 걸치고, 무릎에 넘어진 생채기 아물 날 없이 졸래졸래 따라다니면서 갖은 포달 다 부리며 성가시게 굴어대도, 대복이는 매양 제 막내동생이라도 달래듯 고분고분 받아주었던 건데, 그때 대복이는 이미 어른처럼 목소리가 굵었고, 우리집 머슴 철호마냥 국 한 대접으로 고봉밥 두 사발을 거뜬히 먹어치웠으며...(후략). (『녹수청산』, 122-123쪽)

『녹수청산』의 대복이도 어린 시절 ‘나’를 “제 살붙이처럼 귀여워하며 아껴 위하”(134쪽)던 이웃으로 기억된다. 대복이 역시 웅점이처럼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어 ‘나’에게 친구로서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었던 인물이다.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도 “자기 바구니의 것을 내게 여투어주어야 직성이 풀리”(136쪽)고, “좋은 것,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나부터 먹여”(143쪽)온 대복이는 6·25 참극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우리 집안 꼴을 확인하자 달래기 어려우리만큼 큰 소리로 울어버”(153쪽)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즉 대복이는 어린 ‘나’에게는 좋은 친구였던 인물로 기억되는 존재이다.

그런데 대복이는 도둑질을 해서 유치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전쟁 중 혼란을 틈타 사육을 챙기기도 폭력적으로 분풀이를 하기도 하는 등 마을 또는 사회 전체 측면에서는 따뜻한 공동체적 인간관계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그러면서도 마을 처녀 순심이에게 끝까지 해코지를 하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순심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당시 좌익경력으로 인해 추적을 받고 있던 그녀가 안전한 은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집의 살림을 돕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따뜻한 공동체 정신으로만 단일하게 모아지지 않는 인물의 이야기는 장소 안에서 다양하게 부딪치고 중첩되는 인간의 욕망, 그와 관련하여 복잡성을 띠게 되는 인간관계 등을 포함한 로컬리티의 재현으로 읽힌다. 공동체 정신은 그렇듯 인간의 욕망과 관계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로컬 안에서 그 중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가치로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이웃과 남을 위해 몸을 버릴 수 있었던, 진실로 어질고 가혹한 하나의 구원한 인간상이 내 정신 속에 굳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던 것이다.

그 사람은 내가 일생을 살며 추모해도 다하지 못할 만큼 나이를 얻어 살수록 못내 그립기만 했다. 그의 이름은 신현석(申賢石), 향년 37세였

고, 살아 있다면 올해 마흔여덟이 될 터였다.『공산토월』, 192쪽)

그 가치를 잘 보여주는 『공산토월』의 석공 신현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과 남을 위하는 “진실로 어질고 가특한 하나의 구원상”으로서 ‘나’의 기억에 자리하고 있는 과거 ‘관촌’의 인물이다. 그는 ‘쓸모 있는 돌들’을 모아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다 보니 석공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 만큼, 소박하지만 이웃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이야기된다.

석공은 ‘나’의 아버지가 사회주의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구금됐을 때 정성들여 마련한 음식으로 사식을 차입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연행을 당해 고문을 받기도 했다. 또 ‘나’의 어머니가 병석에 누웠을 때에는 “어디 좋다더라는 약이 있으면 자기네 곡식자루를 메고 가서라도 구해” 왔으며, 어머니의 수의마저도 자신의 손으로 입혔다. 또 ‘나’가 ‘관촌’을 떠날 때도 석공은 “아무 말 없이 땀만 쏟으면서 이삿짐 건사를 거들어주었”(234쪽)이며, 그 이후에도 ‘관촌’에 남아 서울에 사는 ‘나’의 일들을 여러 모로 돌보아 주었다. 그러다 부디 잘들 살라는 말을 남기고 “향년 37세”로 일찍 생을 마감하고 만다.

이러한 인물들의 죽음, 사라짐은 ‘관촌’의 변화와 함께한다. 석공뿐만 아니라 과거 한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 행방불명, 이주 등의 이유로 현재에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으로 회고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향 ‘관촌’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동안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바뀌게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나’가 소속감을 느끼는 ‘관촌’의 해체로 곧바로 이어지는 않는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촌’을 지키고 있는 『관산추정』의 유복산 이야기, 그리고 관촌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요주서』의 신용모와 『월곡후야』의 김희찬의 이야기로 『관촌수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복산은 과거 나에게 “작은대복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너그럽고

자상”(284쪽)한 이웃이었으며, 현재 변해버린 ‘관촌’에서 오직 하나 변치 않은 것으로 남아 고향의 증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고향에서 변함없이 살아가며, “남 못 할 힘드는 일만 골라 자청해서 치다꺼리”를 해주던 그의 부친 유천만의 모습을 대물림하고(314쪽) 있음으로써, 과거 ‘관촌’ 사람들과의 삶을 통해 ‘나’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 공동체적 정서를 현재 ‘관촌’에서 계승하고 있는 인물로 이야기된다.

또한 신용모는 잡은 꿩을 팔려고 하는 이웃 아이를 보고 “물건을 흥정하기에는 애가 너무 어리고 뿐만 아니라 곁에서 말마디나 거들어 다다한뿐이라도 더 받아줘게 해주고 싶”(330쪽)다는 생각에 꿩을 넘겨받아 팔아주려는 찰나에 사복 경찰에게 잡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법정 에까지 출두하게 되는 인물이다. 또 『월곡후야』에서 김희찬은 마을에서 일어난 어린이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를 밝혀내는 데 일조를 하는 인물이며, 그 동생 김수찬은 마을 청년들과 함께 그 가해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넘어 윤리적 제재를 가하여 마을 공동체적 규율을 지키려고 하는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다.

그렇듯 『관촌수필』에서 초점인물로 이야기되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울러 같은 장소 안에서 경험과 공동체적 정서를 크고 작게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더불어 로컬에서 형성되어 일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 정서를 ‘나’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들은 그와 같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하여 서술주체 ‘나’의 경험적 기억 속에서 선택되어 해석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관촌수필』이라는 텍스트에서 어떤 인물상들을 작중인물로 이야기 속에 재현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 배열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공동체적 정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야기 서술 과정에서 공동체적 정서는 ‘나’가 ‘관촌’에서 경험한 삶의 원리이자 ‘관촌’을 텍스트 공간 속에 재현하게끔 한 욕망의 대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동체적 정서의 근원과 욕망은 텍스트 밖 작가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락서산』의 조부를 비롯하여 『행운유수』의 웅접이, 『녹수청산』의 대복이, 『공산토월』의 석공, 『관산추정』의 유복산 등 각 단편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은 『관촌수필』의 『작가 후기』에서 작가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여러모로 나(작가)를 키운”<sup>23)</sup> 사람들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한다. 즉 실제적 삶의 체험 속에서 작가에게 친밀한 경험을 하게 해줌으로써 그 기억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때 소설 텍스트 속 인물들은 물론 작가 자신의 기억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재형상화를 함으로써 창조한 존재이다. 텍스트의 작가, 그리고 텍스트 속 서술주체는 주관적인 선택을 통해 ‘관촌’ 부락의 사람들 중에서도 몇 명의 모델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각 편의 초점인물들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소설 텍스트 공간에 사람들과 그들로 인해 형성되었던 장소성을 옮겨온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해석과 의미화를 바탕으로 선정되고 재형상화 된 인물들의 삶의 단편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한다. 그들 삶의 종합적인 재구성, 전체적 형상화로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술주체 입장에서 하는 주관적 선택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각 인물들의 삶은 전체적으로 형상화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도 인과성을 띠고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 그들은 ‘나’의 집 안팎을 드나들고 마을 안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있음으로써 그저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방식은 그들을 소설의 구성에 의해 요구되거나 배치되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실제 삶을 살아간 인물들의 모사이자 재현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이때 『관촌수필』의 서사라고 할 수 있는 ‘나’의 경험과 기억은 그러한 이웃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23) 이문구, 『작가 후기』, 『관촌수필』, 문학과지성사, 2001, 380쪽.

종합적으로 구조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관촌수필』의 이야기는 다른 측면에서 유기성을 획득하며 묶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소설의 에티몬<sup>24)</sup>이라 할 수 있는 ‘관촌’이라는 장소의 로컬리티 재현을 통해서이다. 『관촌수필』에서 서술주체는 과거와 현재,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관촌’의 로컬리티를 재현함으로써 ‘관촌’의 정서를 텍스트 공간에서 의미화하고자 한다.

이는 근대화를 통해 이중으로 상실 또는 소외되고 있는 공동체 사회를 이야기 속에서 재구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우선 소설 표면에 나타난다. ‘관촌’의 과거는 상실된 전근대적 사회이며, 현재는 소외된 농촌 사회이다. 시간적 개념에서 과거의 ‘관촌’은 사라져버렸으나, 공간적 개념에서 ‘관촌’은 비록 변두리로 완전히 밀려났을지라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서술주체는 친밀한 유대가 넘치던 과거 ‘관촌’을 추억하는 한편, 근대화로 인해 달라져가는 과정 속에서도 한쪽에는 변하지 않은 면을 품고 있는 현재의 ‘관촌’에도 관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관촌’이라는 장소에서 서술주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함께 포착한다. 그리고 그 중 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그것은 현재 일부 인물들에 의해 계승·유지되고 있는 공동체적 정서이다. 그리움의 대상인 조부와 웅점이, 대복이 등은 전근대 사회에서 장소 안 공동체적 정서를 만들어내고 느끼게 해주었던 인물들이다. 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유복산은 고향 땅에 남아 시간이 흘러도 ‘관촌’을 ‘관촌’이게끔 해주는, 공동체적 정서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또한 신용모, 김희찬 등은 ‘관촌’의 현재를 보여주는 인물로 공동체적 정서를 새롭게 계승하고 있는 면모를 지닌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다.

24) 모든 작품은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 총합체인 작품의 중심에는 작품의 내적 응집체인 에티몬이 있다. 에티몬은 작가 정신으로서 작품의 여러 세부 조직에 관련성을 맺어주는 공통의 요소로 작용한다. 태양계의 태양과 같은 중핵(中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김정자, 『한국근대소설의 문체론적 연구』, 삼지원, 1995, 49-50쪽.

그러한 인물들의 목소리와 삶, 관계를 텍스트 공간 속에 되살림으로써 『관촌수필』은 ‘관촌’이라는 장소를 로컬리티 재현 방식으로 재구하며 의미화내고 있다. 이는 근대화 사회의 위계적 질서에 의해 사람들의 인식 또는 가치 중심에서 밀려나버린 로컬의 의미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서, 장소 애착의 성격을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장소 애착을 바탕으로 하는 로컬리티 재현의 욕망이 『관촌수필』의 강력한 에티몬 역할을 하며, 관련성 없이 흩어져 있는 듯 보이는 각 인물의 이야기들을 장소 안 ‘공통 경험’의 이야기로 묶어주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 4. 나오며

『관촌수필』은 소설이면서도 ‘수필’이라는 말을 표제에 사용하고 있다. 수필은 작가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혹은 생각나는 대로 서술하며,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표명하는 장르이다. 변형하지 않은 경험을 비교적 비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소설은 작가가 이 세계에서 살아가며 경험한 것들에 인간의 이상 또는 상상을 더한 이야기를 보다 정제된 형태의 글로 옮겨놓는 것이다.<sup>25)</sup> 즉 소설이 현실을 텍스트 공간에 재현할 때, 그 재현은 창작자가 자신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현실 경험을 해석하여 이야기를 재조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경험은 현실에서 텍스트 공간으로 전이되면서 변형된다.

이문구는 1970년대 국가의 감시를 의식하며 자기검열을 하게 됨으로써 문학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아버지의 남로당 가담을 이유로 6·25전쟁 이후 몰락하게 된 이야기를 포함한 자신의 가족사를 스스로 먼저 소설로 써서 드러내기로 한 것이 『관촌수필』을 창작하기 시

25) 김현 편, 『장르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7, 194-195쪽.

작하게 된 계기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그 이야기를 근대 소설 작법의 질서체계에 따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쓰기 위해 소설 제목에 수필이라는 말을 넣었다고도 술회하고 있다.<sup>26)</sup>

이때 『관촌수필』의 가족사 재현은 과거 고향에서 자신의 가족과 장소, 시간, 생활을 공유하고 있었던 이웃들의 삶, 그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채 재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자신의 근원과 내력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이웃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는 작가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장소 안 ‘공동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세계관이라는 사실도 서술주체의 태도와 그 근원을 보여주는 서술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관촌수필』의 서술주체는 ‘관촌’이라는 장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장소에서의 경험과 기억을 해석적으로 더듬음으로써 로컬리티 재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수필적 글쓰기는 경험을 변형하지 않음이 아니라, 변형한 경험을 근대 소설 체계에 맞추어 구조화하지 않음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관촌수필』이 복합적·중층적으로 장소 안에서 삶을 살아가며 서로 관계를 이룸으로써, 인문적 환경, 더 나아가 그것을 포함한 로컬리티를 형성해냈던 사람들의 관계, 또 그 속에서 크고 작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했던 공동체적 정서를 이야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이때 이러한 로컬 안에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삶과 관계를 재현하기 위해 선택된 이야기 방식은 결과적으로 뚜렷한 장르 구분이라는 문학의 질서화 작업<sup>27)</sup>에 반하는 글쓰기 형태, 즉 반체계적인 글쓰기 형태를 도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대의 위계질서적 인식에 의해 중심에 대비되는 주변의 의미로 밀려나고 고정화되는 로컬에 대한 재인식을 하고자 하고 있는 『관촌수필』의 의식과

26) 이문구, 앞의 글, 139-140쪽, 146-148쪽, 152-153쪽.

27) 김준오, 『한국현대장르비평론』, 문학과지성사, 1990, 21쪽.

인식적으로 연결되는 양식의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관촌수필』에서 ‘관촌’은 ‘나’가 장소, 그 안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장소와 자기의 정체성을 동시에 형성해나갈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의미화 되고 있다. 장소의 기본적 의미를 로컬의 재인식을 통해 찾고 있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장소에 대한 애착이 깔려 있다. 『관촌수필』의 이야기 속에서 ‘관촌’은 이웃들과 친밀하게 교류하던 고향으로 재현되고 있는데, 이푸 투안에 의하면 그러한 이웃과 고향은 인간에게 최상의 장소라고 한다.<sup>28)</sup> 그렇기에 그에 대한 경험과 기억은 ‘관촌’에 대한 애착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애착은 ‘관촌’을 내적 공간 속 의미 있는 장소로서 재현하는 이야기를 생성하게 한다. 이는 『관촌수필』 텍스트 공간 안팎에서 모두 나타난 이야기 생성의 과정이었다.

『관촌수필』은 소설 텍스트 창작 차원에서든 텍스트 공간 안에서의 이야기 생성에서든 ‘관촌’이라는 장소에 핵심을 댄으로써, 기층적 로컬리티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로컬리티에는 로컬의 정체성, 그리고 경험과 기억의 주체가 인식하는 로컬에 대한 정체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그러한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때에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바탕에는 인간의 삶과 인식에서 장소와 인간, 시간,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유가 깔려 있다.<sup>29)</sup>

그렇기에 로컬리티 재현을 위해 『관촌수필』은 서술주체로 하여금 장소 안 ‘공통 경험’을 가진 고향 사람들의 삶이 교차되는 순간, 순간의 이야기를 더듬어서 풀어놓는 방식을 취하게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야기는 병렬적으로 배열된 형태로 존재한다.

이때 ‘관촌’이라는 장소에서 경험한 공동체적 정서와 그것을 추구하는

28) 이푸 투안(2007), 앞의 책, 15쪽.

29) 여기에서 하고 있는 로컬리티에 대한 설명은 렐프의 장소성에 대한 정의를 참고·활용한 서술이다.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07쪽.

정신적 에티몬이 구심점으로 작용함으로써, 그 방만한 이야기들을 한 장소 안에서 교차되고 겹겹이 쌓이는 삶의 이야기로 꿰뚫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관촌수필』의 전체를 묶어주고 있는 힘은 곧 ‘관촌’이라는 장소에서의 공동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그 장소와 그 로컬리티에 대한 애착이다.

『관촌수필』에서 ‘관촌’은 ‘나’에게 공간적인 고향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정서를 표상하는 정신적인 고향으로서 재현된다. 각 단편의 초점인 물들은 그 공동체적 정서의 표상을 위해 선택되고 재형상화 된 존재들이다. 그러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경험과 기억의 삽화들을 더듬어가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까닭은, ‘관촌’이라는 장소 안에서 복합적으로 살아가며 교류를 함으로써, 겹겹이 쌓은 인간관계와 공동체적 정서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서술주체의 태도 때문이다. 즉 『관촌수필』의 이야기 구성 방식은 로컬리티 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선택된 방식인 것이다.

## 참고문헌

- 이문구, 『관촌수필』, 문학과지성사, 2001.
- 고인환, 『이문구 소설에 나타난 근대성과 탈식민성 연구』, 청동거울, 2003.
- 구자황, 『이문구 소설 연구-구술적 서사전통과 변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정자, 『한국근대소설의 문체론적 연구』, 삼지원, 1995.
- 김준오, 『한국현대장르비평론』, 문학과지성사, 1990.
- 김현 편, 『장르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7.
- 류지석 편,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소명출판, 2013.
- 문재원 외, 『로컬리티 담론과 인문학』, 소명출판, 2017.
- 박경리 외 16인, 『나의 문학 이야기』, 문학동네, 200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해안, 2009.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해안, 2010.
- 전중환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논형, 2008.
- 철학아카데미, 『공간과 도시의 의미들』, 소명출판, 2004.
- 현대소설연구회 저, 『현대소설론』, 평민사, 2006.
- 에드워드 켈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 제라르 즈네뜨,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 마르트 로베르, 김치수·이윤옥 역,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9.
- 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 윌터 J. 옹, 임명진·이기우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한국학술정보,

2003.

이푸 투안, 최지원 역, 『문학과 지리학: 지리학적 연구의 함의』, 『지역문학연구』 제5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1999, 131-147쪽.

\_\_\_\_\_,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_\_\_\_\_, 이옥진 역, 『토폴로피아』, 에코리브르, 2011.

<Abstract>

##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Locality in Lee Mun-gu's 『Gwanchonsupil』

Woo, Eun-jin\*

In this thesis, the way how locality is reproduced in 『Gwanchonsupil』, a series novel by Lee Mun-gu, was examined. In 『Gwanchonsupil』, a specific place of ‘Gwanchon’ exists as the center of the novel, and the descriptions of human life and interactions experienced there are connected to the identity of the local area, that is, the representation of locality.

Locality thought about from memories of and attachment to a place, and the identity and recognition of human beings formed based on them are the driving force to lead the description of 『Gwanchonsupil』. In this study, the ways how they are reproduced in the text of the novel were analyzed in terms of its characters and structure. In this respect, the meanings of a place expressed in 『Gwanchonsupil』 were awakened, and the meanings of locality were investigated, which ties each story into a structural whole as an inner cohering agent of the fictional text.

Key Words: Lee Mun-gu, 『Gwanchonsupil』, locality, local, place,  
Representation

---

\* a lecturer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이문구의 『관촌수필』에 나타나 있는 로컬리티 재현 연구 211

■ 논문접수 : 2020년 12월 01일

■ 심사완료 : 2020년 12월 11일

■ 게재확정 : 2020년 12월 16일

